

화이트 노이즈

나오는 사람들

선태준	남자 / 연출 / 20대
한다빈	여자 / 조연출 / 20대
정민아	여자 / 배우 / 60대
김동미	여자 / 미술감독 / 20대
최구영	남자 / 배달원 / 30대
건물주	남자 / 70대
학생	여자 / 40대
엄마	여자 / 10대

무대

한다빈이 거주하는 원룸 502호.

무대 가운데는 원룸 거실, 오른쪽은 현관문, 왼쪽은 화장실로 사용된다.

원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은 관객석 방향에 있다.

거실에는 대형 스크린 한 대와 선풍기형 온열기 한 대가 있고, 비디오테이프들은 원룸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있다.

천장에는 음향 녹음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이불들이 겹겹 깔려있다

화장실 안에는 싱글 침대 매트리스와 한다빈의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다.

관객석 한 쪽에는 무대를 바라보는 영화 촬영용 카메라 한 대가 설치돼 있다.

때

진눈깨비가 휘날리는 12월의 어느 날.

일러두기

(/), 빗금은 다음 대사가 시작되는 곳을 가리킨다.

(소리)는 목소리만 들리는 대사다.

빌라 원룸 502호, 거실.

한다빈, 두꺼운 초록색 패딩과 노란색 꽃무늬 비니를 쓴 채 이불 위에 앉아있다.

깔고 앉은 이불에는 갈색과 빨간색이 섞인 부패액과 혈액이 묻어있다.

회전하는 선풍기형 온열기의 빨간빛과 블루 스크린¹⁾의 파란빛이 한다빈을 비춘다.

(건물 폭발 소리가 작게 들린다.)

선태준(소리) 컷!

정민아(소리) 이거보다 더 크게 소리 내요?

선태준과 정민아,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온다.

선태준의 목에는 음향 헤드셋이 걸려있다.

정민아는 후줄근한 살색 내복을 입고 있고, 한 손엔 태블릿 PC를 들고 있다.

한다빈은 이불 위에 가만히 앉아 있다.

선태준 (정민아에게) 제 말이 맞죠?

숨소리도 잘 안 들리고, 몸의 움직임도 잘 안 보이고.

정민아 저는 적극적으로 소리 내고 움직인 줄 알았는데.

조연출님처럼 보였다는 거죠?

선태준 화장실 모니터로 보신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숨소리는 더 들리게 해주시다가 점차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숨 쉬는 행동은 잘 보이게

(자기 말을 몸으로 흉내 내며) 이렇게, 이렇게 크게 숨을 쉬다가 점차 작게, 이렇게, 이렇게 정적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정민아, 태블릿 PC로 대본을 본다.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빛이 정민아를 비춘다.

정민아 (흔жат말)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숨을 쉬나?

선태준, 정민아의 눈치를 보다.

이후 관객석에 있는 영화 촬영용 카메라로 다가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영상들을 확인한다.

선태준 죽기 직전.

그러니까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콘티 옆에 강조해서 써놓긴 했는데, 못 보셨나?

정민아 (기분이 상한 듯) 콘티 꼼꼼하게 다 봤어요.

제가 학생 단편 영화를 몇 번이나 찍었는데.

선태준 보내드린 레퍼런스 영화에서, 그 장면 기억하시죠?

1) 블루 스크린(blue screen of death, BSOD): 시스템 오류를 복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화면.

(자기 말을 적극적으로, 몸으로 흉내 내며) 여자 주인공이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무릎을 천천히 꿇잖아요? 그 다음엔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크게 숨을 쉬다가 서서히 죽잖아요.

총알이 몸을 관통하진 않았지만, 정신이 총알에 관통돼 죽는 장면을 표현한 거죠.

딱 그 주인공처럼 연기하시면 됩/니다.

정민아

그 역할은 전쟁 반대 시위하는 팔팔한 여대생이고,
이 영화에선 평생 영화만 보다가 고독사하는 99살 할머니잖아요.
이 할머니는 숨을 크게 쉴만한 힘이 없다니까 그러네.
(한숨을 쉬며) 감독님이 아직 대학생이라 잘 모르시나 보다.

선택준

그러면
(카메라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오늘 연기하셨던 촬영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준과 정민아, 카메라를 통해 정민아의 촬영 영상을 확인한다.

선택준, 카메라 화면과 정민아를 번갈아 본다.

선택준

이때요!
이때, 숨을 더 크게!
더 과장되게 숨 쉬면 되거든요?
카메라로 보니까 정말 안 보이죠?

정민아

(혼잣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택준

극적인 움직임과 정적인 움직임의 간극이 보여야 숨이 멎어서 고독사하는 순간이 보인다는 거죠.

정민아

아, 그런데 앉아 있던 사람이 죽으면 옆으로 쓰러지는데 이 할머니는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선택준

평생 영화를 사랑한 할머니가 파란 코퀴토스²⁾를 건너면서도 영화를 보겠다라는 뜻인데, 시적인 장면이죠.

아, 죽음의 5대 강 아시죠?
리허설 때 말씀드렸는데.
비통의 강 아케론!
시름의 강 코퀴토스!
불길의 강 펠리플/레게톤 . . .

정민아

감독님.
지금까지 오십 테이크는 넘게 찍었잖아요?
그것들 편집해서 쓰면 안 되나?

선택준

이 장면은 롱테이크라 편집 불가입니다.

정민아

꼭 롱테이크로 촬영해야 해요?

2) 코퀴토스(Cocytus, Kokytus):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죽음의 강 중에 두 번째로 지나는 강. 이 강을 건널 때는 강물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시름에 젖게 된다.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전해진다.

선택준 강을 따라 고독하게 죽음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무조건 롱테이크로 촬영해야죠.
영화의 엔딩 장면이자 핵심 주제라서요.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편집해요?
그러면 안 되죠.

정민아 (시간을 확인하며) 내일 새벽에 사극 촬영 있거든요?
촬영 로케이션 도착하려면 30분 뒤편 무조건 출발해야 해요.

선택준 (당황한듯) 아, 그래요?

정민아 조연출님이 알고 계실 텐데. 모르셨어요?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한다빈에게) 조연출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한다빈, 대답하지 않는다.

선택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테이크.

정민아 아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네.

선택준 30분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무조건.

정민아 사극 촬영 들어가려고 오디션만 8번 봤어요.
늦으면 다 헛수고라고요.
제시간에 로케이션 도착 못 하면 책임질 거예요?

선택준 지금 이 장면, 제 졸업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학교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요.
욕심이 나서 그랬는데 . . .
(정민아의 눈치를 본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저영 - 말 마지막
한 테이크만 더 촬영하고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정민아 (잠시 고민한 후) 진짜 마지막 테이크예요.

선택준 (웃으며) 이동하실 때 교통비는 저희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셔도 돼요.

정민아 여기서 택시 타면 택시비 10만 원은 넘게 나와요.
학생 영화라 제작비 없는 거 저도 뻔히 아는데.
됐고, 일단 시간 없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해봐요.

선택준 정말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배우님.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큰 목소리로) 미감님, 미술감독님!
잠깐 나와봐요!

선택준, 영화 촬영용 카메라 옆에 있던 애플박스를 정민아에게 건넨다.

선택준 여기 잠깐 앉아계세요, 배우님!

김동미,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온다.

김동미는 알이 작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정민아, 애플박스에 앉아 태블릿 PC로 대본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내쉬는 연기 연습을 반복한다.

선택준, 한다빈이 앉아 있는 이불을 바라본다.

김동미 (급하게) 끝난 거죠? 벽지부터 뜯어요?
아니면 화장실 모니/터 정리?
선택준 좀 더 사실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동미 사실감? 어떤 사실감?
(답답하다는 듯) 아니, 또 찍자/고요?
선택준 이불 위에 뿌린 부패액이랑 혈액이 진짜 사람 몸에서 나온 것처럼.
리얼하게.
김동미 지금보다 눈 더 심하게 내리면 완전 차 막혀요.
선택준 (부패액과 혈액이 묻은 이불에 다가가며) 레퍼런스로 같이 본 거 기억하지? 진짜 고독사 현장 사진. 그거랑 똑같이.
(고민하며) 음, 색 농도를 더 진하게?
김동미 진하게 하면 괴상해진다고 촬영 프리 단계 때부터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선택준 지금 너무 가짜 같지 않아?
뭐라 그럴까 . . .
인위적인 느낌?
김동미 한 번 뿌리면 끝이에요, 이불도 더 없고.
그리고 색깔 진해지면 다시 연해지게는 못해요.
선택준 (고민하며) 그래? 어, 그러면
김동미 (큰 목소리로) 감독님!

김동미, 정민아의 눈치를 본다.

김동미 (선택준에게 다가가 속삭이며) 선배, 렌탈샵에서 빌린 촬영 장비들 내 이름으로 빌렸거든요?
오늘 밤 10시까지.
선택준 (정민아의 눈치를 본다. 속삭이며) 알겠어, 알겠어.
김동미 이번에도 늦게 반납하거나 고장나면 렌탈샵 사장님이 블랙리스트로 올릴 거래. 오늘 장비 빌린 곳 말고도 전국 렌탈샵 전체 다.
선택준 알겠어, 알겠어.
미술 상태 보강하고 마지막 한 테이크만 더 가자, 응?
김동미 (답답해하며, 큰 목소리로) 선배!

김동미, 정민아의 눈치를 한 번 더 본다.

김동미 (다시 속삭이며)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전국 렌탈샵에서 내 이름으로

촬영 장비 못 빌려, 평생.
 그러면 다음 학기 때 실습 창고 구석탱이에 있는 싸구려 학교 카메라
 로 졸업 영화 찍어야 한다고!

선태준 너 졸업 영화 때 내 이름으로 빌리면 되잖아.

김동미 나는 졸업 영화가 마지막 영화야?
 그다음은?
 학교 졸업하고 촬영하는 영화들은 어떻게 하나고!
 평생 다른 이름으로 빌려서 영화 찍/어요?

선태준 (빠른 속도로)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지금 몇 신데?

김동미 (손목시계를 보며) 9시 조금 넘었어요.
 최소한 여기서 30분 뒤에는 출발해야 해요.

선태준 30분?

김동미 너도 사극 찍으러 가냐?
 네?
 선배,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빨리 결정해요.
 더 진하게 해? 아니면 하지 마?
 아니면 바라시 3)해?

정민아, 선태준과 김동미에게 빨리 끝내라는 눈치를 주듯이 과장되게 숨을 들이마신 후 내쫓
 다.

선태준 (정민아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빨리, 진하게, 사실적으로 해봐.
 김동미 그놈의 적당히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몰라. 알아서 할게요.

김동미, 이불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다.

선태준 아니야.
 일단, 이대로.
 지금 이대로 다시 한번 더 가보자.
 여기서 더 칠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건물 폭발 소리가 들린다. 처음 들렸던 소리보다 조금 더 커졌다.)

한다빈을 제외한 사람들, 창문을 바라본다.

정민아 (놀라며) 전쟁 난 거 아니에요?

3) 바라시(ばらし): 분해하다, 해체하다, 죽이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일본어 동사 '바라스(ばらす)'의 명사형에서 온
 말. 건설업계에서는 거푸집 등을 해체하거나 뜯는 작업을 일컫는 말.

선태준 (밖을 바라보며) 죽은 건물 폭발시키는 소리예요.
 정민아 밤 9시 넘어서 무슨 철거를 해요?
 눈도 오잖아요!
 김동미 시청에 전화했을 땐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철거 시작이라 촬영에 지장 없다고 했는데.
 선태준 한국에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영화관이에요.
 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기서 졸업 영화 상영하고, GV⁴⁾ 하는 게 꿈이었는데.
 김동미 이제 진짜 포기해요.
 학교 구석탱이에 있는 영화과 스튜디오 103호 알죠?
 거기서 졸업 영화 상영회하고 끝낼걸요?
 아니, 103호 스크린 찢어진 건 왜 아직도 안 고쳐줘요?
 예술대라면서 학비는 비싸게만 받아놓고.
 정민아 (화가 나지만 웃으며) 감독님, 저 가야 되는데.
 김동미 (웃으며) 아, 저희 이불 세팅 다시 안 해도 돼서 바로 촬영 가볼게요.
 선태준 (영화 촬영용 카메라로 다가가며) 정말 마지막 테이크 가겠습니다.
 김동미 (한다빈에게 다가가서) 조연출님, 이제 나오셔도 돼요.

한다빈, 대답하지 않는다.

김동미 조연출님!

김동미, 한다빈의 몸을 흔든다.

김동미 (한다빈의 귀에 속삭이며) 다빈아, 한다빈!
 한다빈 (잠에서 깨며) 어, 숨소리 수음⁵⁾ 잘 됐어요.
 김동미 뭘 소리야?
 촬영 다시 할 거니까 패딩이랑 비니 벗어서 배우님 드려.

한다빈, 초록색 패딩과 노란색 꽃무늬 비니를 벗는다.

선태준 (쏟아있는 비디오테이프 쪽을 가리키며) 미감님, 저 비디오테이프 빼주세요.
 김동미 (비디오테이프를 가리키며) 이거요?

한다빈, 정민아에게 패딩과 비니를 건넌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정민아 (건네받은 옷을 입으며) 이거만 입으면 되죠?
 선태준 (정민아에게, 웃으며) 네, 맞아요.

4) GV(Guest Visit): 영화 상영시 감독이나 영화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영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객들과 질의 응답도 주고받는 무대

5) 수음: 소리로 된 신호를 받는 행위.

(촬영용 카메라 모니터를 보며) 아니, 그거 말고 스크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김동미, 선태준이 말한 곳으로 이동한다.

선태준 (카메라를 보며) 세심하게 확인 안 하면 교수님들이랑 선배들이 영화 미술 세팅 대충했냐고 뭐라 할 거야, 분명.
아니, 동미야!
그 아래에 있는 거!
아니, 밑으로 세 번 더 내려가봐.
(화장실에 들어간 한다빈에게) 조연출님, 카메라 롤⁶⁾하면 음향 큐 주세요.

김동미 화장실에 있는 연출 모니터로 안 볼 거예요?

선태준 카메라 모니터로 보면서 배우님한테 바로바로 피드백할 거니까 미감님이 화장실 가서 봐주세요.

정민아 저, 앉아요?

선태준 (웃으며)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불 위에.

정민아, 이불 위에 앉는다.

김동미 (비디오테이프를 가리키며) 이거 빼라는 거죠?

선태준 아니, <오베라는 남자⁷⁾> 저거 빼라고. 하네스 홀름⁸⁾ 영화.
(정민아에게) 살짝 오른쪽으로 앉아주세요,
부패액이랑 혈액 잘 보이게.

김동미 (아래쪽에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빼려고 하며) 이불 미술은 그대로 가는 거지?

정민아 (통명스럽게) 저 일어나요?

선태준 (웃으며) 아뇨, 아뇨.
앉아계신 상태에서 카메라 기준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김동미에게) 그것만 빼줘.
혹시 모르니까, 피는 내가 가져올게.
어딴데, 가짜 피?

정민아 (태블릿 PC로 시간을 확인한다. 재촉하며) 빨리 좀.

김동미 예, 배우님. 잠시만요!
(조심스럽게 비디오테이프를 빼려고 하며, 선태준에게) 화장실 안에.

선태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김동미 선배, 변기 쪽 밑에 가짜 부패액이랑 혈액 따로 구분해 놓았거든?

6) 롤(Roll): 영상 촬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7)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소외된 노인과 고독사 문제를 다룬 영화.

8) 하네스 홀름: 스웨덴 영화 감독.

그러니까 . . .

김동미, 비디오테이프를 빼려한다.

이때, 쌓여있던 비디오테이프들이 무너지고, 앉아 있던 정민아 머리 위로 비디오테이프들이 떨어진다.

정민아, 머리를 부여잡고 아파한다.

김동미 (놀라며) 어머, 배우님!

선태준, 화장실에서 나온다.

두 손엔 가짜 부패액과 혈액 용기가 들려있다.

선태준 (놀라며) 괜찮으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민아 (애써 화를 참으며) 괜찮아요, 괜찮아. 비니 써서.

건물주(소리) (복도의 누군가에게) 담배는 집밖에서 피라니까!

301호 학생 맞지?

벽지 다 누래지면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학생이 직접 하고 갈 거야?

선태준 (현관문을 바라보며) 저희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김동미 안에 비디오테이프는 없어서 아프시진 않을 거예요, 빈 껍데기라.

정민아 (어이없다는 듯) 네, 빈 껍데기라 천만다행이네요.

건물주(소리)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다빈 학생 안에 있는 거 알아.

오토바이도 있더라!

모두, 현관문을 바라본다.

건물주(소리) 안 잊었지, 오늘? 다빈 학생?

김동미, 현관문으로 간다.

선태준 죄송해요. 미술감독님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정민아 (비니를 벗고, 자기 머리를 만지며) 감독님, 애들이, 아니, 스텝들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소리) 방금 수동으로 열었죠?

현관 도어락 건전지 빼놨어?

건전지 없으면 밖에서 못 연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김동미(소리) 죄송합니다.

건물주(소리) 작년에도 사람 불러서 문 열었어.

사람 부르면 오만 원이야, 오만 원!

건물주와 김동미, 원룸으로 들어온다.

건물주는 군밤 모자에 보라색 체크 자켓을 입고 있으며, 구멍난 검정 양말을 신고 있다.

건물주 다빈 학생?
 다빈 학생 어딴어요?
 불은 왜 꺼놔어?

건물주, 원룸 형광등 불을 켜다.

(무대 밝아진다.)

건물주 (집을 둘러보며) 개판 오 분 전이네.
 내가 오늘 온다고 말했잖아.
선택준 (화장실을 향해) 다빈아!
김동미 제가 데리고 올게요.

김동미, 화장실로 들어간다.

건물주 이거 이불은 뭐예요? 벽지는?
 어? 이거, 곰팡이 원래 없던 건데.
선택준 촬영 때문에 저희가 칠한 건데, 다시 원상복구 해놓을 거예요.
건물주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이런 거였으면 안 빌려줬어.
 (쿵쿵거리며) 이걸 무슨 냄새야?
김동미(소리) 다빈아.
선택준 여기 다빈이 집이잖아요.
건물주 여기 건물 주인은 나니까 내 허락을 먼저 받았어야지.
 (다시 쿵쿵거리며) 근데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예요?
 이상한 냄새데.
 곰팡내 아니야?
김동미(소리) 다빈아, 일어나 봐!
 주인아저씨 오셨다니까?
선택준 벽지는 훼손된 게 아니고, 위에다가 벽지 하나 덧대서 그린 거예요.
 곰팡이 냄새는 원래부터 났고요.
건물주 (바닥에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하나 들며) 건물 복도에 비디오테이프랑
 그, 뭐냐. 어! 촬영 용품 같은 거 뒀어요?
 큰 노란색 캐리어랑 나/무 상자랑 . . .
정민아 제 거예요, 큰 노란색 캐리어.
건물주 복도에 짐을 쌓아두는 거 불법 행위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거 누가 내겠어?
학생들이 낼 거야?

한다빈과 김동미,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온다.

건물주 (온열기를 끄며) 이 온열기도 말이야.
이불 가까이에 두지 말라고 했잖아.
올해 초에도 온열기 때문에 불나서 119 오고 그랬던 거 아냐!

한다빈 (피곤한 듯) 아, 안녕하세요.

건물주 오늘 방 보러 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한다빈 그날이 오늘이예요?

건물주, 집을 천천히 둘러본다.

건물주 이 상태면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바로 계약하겠어?
이번 달에 무조건 방 뺀다며.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빌리던가.
보증금 5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김동미 (다빈에게) 너 방 빼? 학교는? 휴학하게?

건물주 이번 수시 때 붙은 신입생 가족이 방 보러 오는 거야.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은 살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청소하든가 아니면 저 벽지라도 빨리 뜯던가.

정민아 (선택준에게, 웃으며) 감독님?
(입 모양으로만) 가야 되는데.

건물주 그리고 복도에 있는 노란색 캐리어도.
(정민아에게)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 누가 내겠어?
학생이 낼 거/냐고!

선택준 (정민아에게) 네, 네. 금방 끝낼게요.
(건물주에게) 저희 촬영 중이라서요.

건물주 아, 나가라고? 촬영 중이니까?
요즘 애들 집은 쓰레기 장이야, 쓰레기장.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비디오테이프는 뭐 이렇게 많아?

건물주, 비디오테이프를 바닥에 던진 후 밖으로 나간다.

(건물 폭발 소리가 들린다.)

한다빈을 제외한 모두, 창문을 바라본다.

정민아 (답답함을 참으며) 전쟁 나고 찍을 거예요, 감독님?
선태준 얼른 찍어요!
정민아 (바닥 떨어진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이거 정리 안 해요?
선태준 미감님이랑 조연출님이 쌓아주세요. 다 쌓으면 촬영 시작할게요.
김동미 (다빈에게) 다빈아, 너 괜찮은 거지?

한다빈, 고개를 끄덕인다.

한다빈과 김동미, 비디오테이프들을 쌓기 시작한다.

정민아 감독님 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디렉션 다시 주세/요.
선태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정신이 죽는 거로.
정민아 추상적인 디렉션 말고요. 행동 위주/로요.
선태준 (직접 몸으로 연기하며) 입고 있는 패딩이 들썩들썩.
그러니까 이렇게 들썩들썩하다가 그라데이션으로 움직임이 멈추면 되
거든요?
숨소리도 똑같이 크게 내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멈추고.
정민아 감독님, 고독사하는 순간은 본 적 없죠?
선태준 고독사 현장 사진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순간은 본 적은 없고 . . .
아! 고독사 관련 다큐멘터리는 봤는데.
네, 뭐, 죽는 순간은 본 적 없지만.
정민아 제일 친했던 친구가 죽었다고 연락받은 적 있었거든요?
가족이 없어서 최근 전화 목록에 있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경찰한
테. 6개월 전에 전화했었는데 그 전화가 최근 전화 목록 첫 번째였던
거예요. 5층 여자 고시원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발견됐대요,
죽은 지 10일 만에.
5층 고시원 전체에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누가 신고했던 거죠.
고독사하는 할머니 연기하려고 상상해 봤어요.
작은 고시원 방 의자에 앉아 그 친구는 어떻게 죽었을까?
전쟁터 속 여자 주인공이랑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어떤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 거죠, 고독하게.
선태준 현실과 카메라 속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 카메라로 99살 노인이 죽는 순간을 담고 싶어요.
카메라에서는 더 드러내고, 보여줘야만 관객들이 알 수 있거든요.
과장하라는 건 아니고 증폭시키자는 거죠, 죽음의 진동을.
정민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척해야 하는 거네요.
김동미 (선태준에게) 저희 정리 다 끝났습니다. 바로 촬영해도 돼요.

정민아 일단 해볼게요, 원하시는 대로.
연출된 상황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정민아, 이불 위에 앉는다.

김동미 선배, 나 화장실에 있는 연출 모니터로 봐?
아니면 선배랑 같이 카메라 모니터로 봐?

선태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김동미 선배?
(선태준에게 다가가며) 선배! 반납 시간도 그렇고,
배우님도 가야 한다고 하고.
응? 한 번에 끝내자고!

짧은 사이.

김동미 우리 20분도 안 남았어.
선태준 알겠어, 일단.
(모두에게, 밝은 목소리로) 저희 바로 촬영해 봅시다!
김동미 불 끄겠습니다.

김동미, 온열기를 작동시킨 후 거실 형광등을 끈다.

(온열기 빛과 TV 블루 스크린 빛만이 원룸 안을 비춘다.)

선태준 숨소리만 잘 따주세요, 조연출님.

한다빈, 눈을 감은 채 말없이 가만히 서 있다.

선태준 살아있는 숨소리에서 죽어가는 숨소리로 변하는 거.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숨소리만 잘 따주면 됩니다.

한다빈, 대답하지 않는다.

선태준 왜 말을 안 해?
빨리 찍고 곰팡이 뜯으면 되잖아.

한다빈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

선태준 (기분이 상한 듯) 나도 너 연출할 때 도와줄게.

집 빌려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사이.

선태준 설마 너, 지금 서서 자는 거야? 응?
김동미 (선태준을 진정시키며) 선배, 일단 어? 일단. 얼른 찍자.
(다빈의 손을 잡고) 다빈아 들어가자.

한다빈과 김동미, 화장실로 들어간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정민아 온열기 2단으로 들어놔요?
아깐 3단으로 했던 것 같은데.
선태준 그럼 3단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민아, 온열기를 3단으로 올리자 빨간빛이 더 세진다.

선태준 아니다, 2단으로 갈게요.

정민아, 2단으로 내린다.

선태준 좋아요. 저희 바로 촬영 시작할게요.
카메라 롤. 사운드.

사이.

선태준 사운드! 지금 MOS⁹⁾ 아니라니까?

짧은 사이.

선태준 (화를 내며) 다빈! 대답 안 해?
김동미(소리) (큰 목소리로) 스피드¹⁰⁾.
선태준 (한숨을 쉰 후) 슬레이트 없이 갈게요.

짧은 사이.

선태준 레디, 액션!

9) MOS(Mit-Out Sound): 음향을 수반하지 않는 촬영.

10) 스피드(Speed): 동시 녹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영화나 방송 촬영에 있어 동시 녹음 기사가 녹음 준비가 끝나 녹음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외친다.

정민아, TV 블루 스크린을 바라보며 과장되게 숨 쉰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최구영(소리) 배달이요.

선태준 (큰 목소리로, 현관문을 향해) 두고 가세요.

최구영(소리) 만나서 결제요!

선태준 저희 끊고 갈게요.

김동미,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온다.

김동미 도시락 시켰더라고, 저녁으로.

선배 카드 어딴어? 제작 카드.

선태준 (옷 주머니를 뒤지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김동미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얼른.

선태준 (제작 카드를 꺼내 주며) 영수증 꼭 받고.

김동미 알겠어, 알겠어.

김동미, 현관문으로 나간다.

선태준 (정민아에게) 저희 밥만 받고 바로 할게요.

정민아는 선태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핸드폰 카메라로 자기 상태를 확인한다.

선태준 (화장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조연출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녹음 됐나? 배달원 목소리랑.

다빈! 방금 촬영 한 건 음향 후반 작업 때 못 쓰는 거잖아, 맞지?

사이.

선태준 한다빈!

긴 사이.

선태준, 답답함에 못 이겨 화장실로 가려 한다.

김동미(소리) (현관문을 두드리며) 선배, 잠깐만 나와봐.

(현관 문고리를 흔들며) 이거, 문이 안 열려! 선배 카드 안 된대.

선태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간다.

정민아 (화장실을 향해) 조연출님, 혹시 들어갔어요, 소리?
배에서도 났는데.

사이.

정민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정민아 조연출님?

사이.

정민아,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화장실 안은 싱글 침대 매트릭스와 옷가지들이 쌓여있다.
한다빈은 음향 헤드셋을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작은 의자 앉아 있다.
정민아는 그런 한다빈의 모습이 자고 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정민아 (속삭이며) 조연출님. 조연출님?
(한다빈을 흔들며) 조연출님?

한다빈 (잠에서 깨며) 어? 배우님.
촬영 끝났나요?

정민아 아직이요.

한다빈 아, 네.

정민아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들어갔어요?
꼬르륵 소리요.

한다빈 아, 들어보실래요?

한다빈, 음향 헤드셋을 정민아에게 건넨다.
정민아는 헤드셋을 착용한다.
두 손으로 헤드셋을 잡고, 헤드셋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집중한다.

(각기 다른 형태의 건물 폭발 소리가 여러 번 들린다.)

한다빈, 처음으로 건물 폭발 소리에 반응한다.
한다빈의 눈이 서서히 감기며 잠이 든다.

정민아 (헤드셋을 벗으며) 완전 들어갔네.
이걸로 들으니까, 천둥소리처럼 들려요.
(잠든 한다빈을 보고) 또 자는 거예요?

한다빈 (잠결에) 네? 아.
(잠에서 깨며) 완전 백색소음이죠? 그래서 잠이 오나 봐요.

정민아 (헤드셋을 건네며) 전 배고파서 잠도 안 와요.

한다빈, 헤드셋을 받아 목에 착용한다.

한다빈 조용한 것보다 약간 시끄러울 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정민아 고독사 노인도 죽기 직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요?
저는 고독사 노인 연기하려고 5일 동안 단식해서 지금도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한다빈 (눈을 비비며) 5일 동안 단식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정민아 (한다빈의 상태를 살피며) 눈 싹뺏아 다 터졌네.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빈 촬영할 때는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촬영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끝나면 내일 새벽에 또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정민아 새벽에 일을 또 가요? 그러다 몸 다 상해.
 아니다, 아니다. 저도 이번 촬영 끝나고 4시간 동안 눈길 운전해서 사극 로케이션 가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큰 작품 들어가는 거라 열심히 해서 무명 40년 끊어내야죠. 단역이 아니라 조연급이에요, 김상궁 역할.
 중간에 사약 먹고 죽긴 하지만.

사이.

정민아 (웃으며) 젊을 땐 다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조연출님 나이잖아요?
 그럼 잠 안 자고 매일 밤새면서 영화 촬영하고 일했을걸요?
 그땐 힘이 넘쳐났으니까.
한다빈 (애써 웃으며) 지금도 엄청 젊어 보이세요.
정민아 손자가 둘이야, 쌍둥이로.
 (화장실을 둘러보며) 이거 다 조연출님 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선택준(소리) (현관문 두드리며) 문 열어봐, 안 열려.

한다빈과 정민아, 화장실 안에 있어서 듣지 못한다.

한다빈 고독사 할머니랑은 안 어울려서 빼냈어요.
정민아 (혼잣말) 고시원도 이 정도 됐으려나?
김동미(소리) 다빈아. 한다빈!
선택준(소리) (현관 문고리를 흔들며) 이거 열어봐, 이거. 닫혔어.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커진다.)

한다빈, 목에 착용한 헤드셋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눈치챈 후, 헤드셋을 착용한다.

김동미(소리) 배우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건전지 빼놔서 안 열려서요!

한다빈 (헤드셋을 벗고 바닥에 내려 두며) 저 현관문 열고 올게요.

한다빈, 화장실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어준다,

정민아, 헤드셋을 착용하고 한다빈이 앉았던 작은 의자에 앉은 후, 영화 촬영용 카메라와 연결된 화장실 모니터를 통해 거실을 본다.

김동미(소리) 건전지 넣어놔야겠다, 다빈아.

선태준(소리)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선태준, 김동미, 한다빈, 최구영이 거실로 들어온다.

최구영은 헬멧을 착용한 배달원 복장이다.

최구영의 헬멧과 어깨엔 눈이 약간 쌓여있고, 두 손엔 도시락이 담긴 봉지들이 들려있다.

최구영 됐어, 됐어.

5만 원도 안 나왔네.

선태준 5만 원이면 큰돈인데.

최구영 태준아, 너 진짜 보내지 마.

그리고 나도 선배들한테 많이 받았어. 학교 전통이야.

너도 후배들 사주면 돼.

미리 알았으면 맛있는 걸로 사 올걸.

그래도 영화 제작비 카드인데 잔액 부족이면 어떡/하냐?

선태준 선배, 그래도.

최구영 왜 이래?

정말 됐다니까 그러네.

졸업했어도 한 번 선배면 영원한 선배야.

최구영, 원룸을 둘러본다.

최구영 근데 분위기 장난 아니다.

느낌은 있네.

똥미, 네가 미술 감독이지?

약간 똥냄새까지 나는데?

근데 내가 말했지 않나?

영화 촬영하는데 냄새까지 리얼하게 할 필요 없다고.

비효율적이라니까?

어차피 관객들은 몰라.
 영화는 시각 예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똥미, 너 진짜 똥 뿌린 건 아니지?
 (통명스럽게) 아무것도 안 뿌렸어요.
 김동미 진짜 사람 하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 . .
 최구영

최구영, 벽지를 만진다.

최구영 벽지 곰팡이는 질감을 더 살려야겠다.
 관객에게 보여지는 걸 더 리얼하게 만들어야지, 냄새가 아니라.
 (답답해하며) 하, 지금까지 뭘 배운 거야?
 (한다빈을 보고 놀라며) 뭐야?
 너 오늘 새벽 배달 끝나고 지금까지 촬영한 거야?
 한다빈 네.
 최구영 괜찮아, 다친 건?
 선태준 (놀라며) 다쳤어?
 한다빈 아, 그냥 조금.
 최구영 뭐가 조금이야.
 야, 똥미, 어제부터 계속 눈 온 거 알지?
 떡볶이 배달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빈이 오토바이 하단부 다 갈
 리고, 배달가던 떡볶이는 눈길에 다 옆고.
 떡볶이 자국이 핏자국인 줄 알고 애 죽은 줄 알았다니까?
 역시 젊은 게 좋긴 좋네.
 밤새고 촬영장까지 /오고.
 김동미 다른 배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구영 됐어, 됐어.
 김동미 왜요?
 최구영 (창문을 보며) 밖에 봐봐.
 눈발 장난 아니야.
 지금 배달하면 어제 다빈이처럼 얼음 아스팔트에 미끄러질걸?
 그러면 하늘나라 직행이야.

최구영,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최구영 젊을 때라고 몸 막 쓰면 안 돼.
 날씨에 맞춰 조심할 줄 알아야 오래오래 산다고.
 김동미 (선태준에게) 선배, 근데 우리 진짜 시간 없는데.
 15분, 아니 10분 뒤편 렌탈샵으로 출발해야 해.
 최구영 가긴 어딜 가, 똥미!
 (이불을 보며) 이거 이불 더 진짜처럼 해야 돼.
 비디오테이프도 색깔 맞춰서 다시 쌓고.

영화 미술 대충하면 욕 바로 먹는 거야.

영화가 만만하냐?

어떤 장면이든 간에 영혼을 넣어서 만들어야 겨우 리얼함을 살리지.

이거 다 가짜야, 가짜. 냄새만 진짜고.

(선태준에게) 안 그래?

선태준 (최구영의 눈치를 보며) 동미야, 이불에 부패액이랑 혈액 더 칠해줘.

김동미, 대답하지 않는다.

최구영 됐어, 됐어.

내가 할게, 내가.

선태준 아니에요, 선/배.

최구영 됐어, 됐어. 배우는?

그때 그 사람으로 계속하는 거야?

(속삭이며) 그 배우, 소문 다 났잖아. 연기 더럽게 못한다고.

그래서 영화과에선 블랙리스트야, 블랙리스트.

한다빈 (최구영을 말리며) 저, 선배/님.

최구영 촬영할 때마다 꼬장 안 부렸어?

나이 먹고 똥고집만 세졌어.

무명 주제에 원하는 건 진짜 많고.

여기서도 그랬지?

김동미 (한다빈에게, 속삭이며) 정민아 배우님 어디 갔어?

최구영 대학생 단편영화만 겨우 전전하는 거 보면 답 나온다.

정민아, 음향 헤드셋을 벗는다

(건물 폭발 소리가 들린다.)

한다빈을 제외한 모두, 창문을 바라본다.

정민아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본다.

최구영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며) 내 졸업 영화는 저기서 상영했는데.

대한민국 마지막 독립 영화관도 이제 무너지는구만.

독립영화 지원 예산도 다 끊겼어.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할 곳이 없다니까?

젊은 영화인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지.

(김동미를 보며) 그래도 동미!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 예술은 더욱더 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영화는 시각적 레이어¹¹⁾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11) 레이어(Layer): 층.

그러니까 부패액을 여러 겹으로 더 진하게!
알겠지?

정민아,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온다.
한다빈을 제외한 모두, 정민아를 바라본다.

선택준 (조심스럽게) 10분 뒤에 출발하시면 되죠, 배우님?

정민아, 입고 있던 초록색 패딩과 노란색 꽃무늬 비니를 벗어 바닥에 던진다.

김동미 곧 시작할 거예요, 배우님.
입고 있으면 바로 마지막 장면 촬영/할 건데.

정민아 안 입어요.

선택준 네?

정민아 (자기 태블릿 PC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선택준에게) 촬영 5시간
딜레이된 거 알죠?
제가 그걸로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숨쉬기나 시키고.
(최구영에게) 그쪽이 말한 거죠?
내가 꼬장 한 번 제대로 보여줘?

정민아, 도시락 봉투들을 모두 든다,

정민아 (화를 내며) 내가 5일이나, 어?
5일이나 굶었다고!
이 나이에 단식하면 몸이 붕괴된다고!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
그래도 말이야, 책임감 갖고 한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민아,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한다.
한다빈, 그런 정민아를 가로막는다.

한다빈 (미안한 듯) 저, 배우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민아 조연출님한테 나쁜 감정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내 목소리로 시끄러운 백색소음 만들어주기 전에.

선택준 배우님, 마지막 한 컷만이/라도.

정민아 (도시락 봉투를 보여주며) 출연료 보내지 마세요.
대신, 이 도시락들은 지금까지 촬영한 출연료로 가져갑니다.

정민아, 현관문 밖으로 나간다.

사이.

최구영 소문이랑 똑같네.
똥미, 이젠 내말 좀 믿으라니까?

한다빈, 애플 박스에 얹는다.
그러고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듯 천천히 잠든다.

최구영 그래도 진정한 영화인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하는 거/야.
김동미 (최구영에게) 마무리? 뭘 마무리?
선배! 선배 때문에 블랙리스트 되는 거라고요.
선배 졸업 영화 촬영 때, 제 이름으로 빌린 촬영 장비 늦게 반납한 거
잊었어요?
최구영 똥미, 그날 5분밖에 안 늦었어.
개네가 깐깐한 /거지.
김동미 카메라 렌즈 박살 났다고 왜 말 안 했어요?
최구영 몰랐지.
김동미 알고 있었잖아요.
최구영 똥미, 내가 말했잖아, 그거. 그거 원래부터 금 간 상태라고.
촬영 끝나고 정리하다가 고장난 거겠/지.
선태준 그만해요, /돌다.
김동미 똥미, 똥미, 똥미, 똥미!
제가 똥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제 이름 동미예요! 동! 미!
그리고 선배가 렌즈 박스 바닥에 떨어뜨린 거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
는 줄 알아요? 거짓말은 무슨.
최구영 몇 명인데? 말해봐! 몇 명이냐고?
똥미야, 괜히 생사람 잡지 마.

선태준, 잠든 한다빈을 바라본다.

김동미 렌즈 수리비만 500만원 나왔어요.
선배가 끝까지 안 갚아서 제가 대신 갚았잖아요, 렌탈샵에.
최구영 그거, 그거 . . .
(생각이 난 듯) 어! 배우들이 자기들 천다고.
(한다빈을 보며) 애처럼 응? 렌즈 박스 위에 얹어서 자더라고.
그때 렌즈가 깨진 거지. 왜 날 탓해?
선태준 (잠든 한다빈을 보며) 똥미야.
김동미 (울먹이며) 500만원 벌려고 6개월 동안 주말마다 양말공장에서 12시간

선태준 싹 아르바이트했어요.
 내 주말, 내 시간, 내 청춘 다 날렸다고!
 선태준 아직 시간 남았어.
 김동미 원 시간이요?
 선태준 동미야! 아직 시간 남았지?
 김동미 시간 다 날렸다니까요!
 선태준 아니, 반납 시간!
 일단, 어! 옷 입혀, 다빈이.
 김동미 네?
 선태준 패딩 입고 비니 쓰면 스텝인지 배우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잘 가리면 /돼.
 김동미 다빈이가 배우도 아니고.
 선태준 (동미를 보며) 내가 너 블랙리스트 안 되게 해줄게.

짧은 사이.

선태준 또 양말공장 갈래?

김동미, 잠시 고민한 후, 패딩과 비니를 주워 한다빈에게 입힌다.
 최구영,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건물 폭발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건물 폭발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선태준 (최구영에게) 선배.
 최구영 (놀라며) 난 이제 가볼게. 잘 촬영하고.

최구영,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한다.

선태준 부패액이랑 이거 혈액 좀 칠해주세요.
 최구영 눈도 이제 그친 것 같은데 얼른 돈 벌러 가야지.
 선태준 500만원짜리 일하고 가야죠.
 김동미 (최구영이 했던 말을 흉내 내며) “진정한 영화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한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다빈을 제외한 모두, 현관문을 바라본다.

최구영 (웃으며) 다시 왔나 봐!

선태준 (현관문을 향해) 문 열어드릴게요, 배우님!

건물주(소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요, 다빈 학생.
집 보러왔어.

김동미 (선태준에게) 어떡해요?

딸(소리) (누군가에게, 놀라며) 괜찮으세요?
같이 들어드릴까요?

선태준 (한다빈에게) 어떻게 해?

건물주(소리) 왜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어요?
복도에 음식 냄새 난다니까 그러네!

엄마(소리) 눈 와서 계단 미끄러울텐데.

한다빈 (최구영에게) 열어야 할 것 같은데.

건물주(소리) 그러니까 노란색 캐리어를 왜 여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최구영,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선태준 (다급하게) 다빈, 일단 이불에 앉아봐.
카메라만 세팅하고, 집 보러온 사람 나가면 바로 찍자고.
알겠지?

최구영(소리) 저희가 촬영 중이라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건물주(소리) 뭘 기다려, 멀리서 오셨는데.

건물주, 최구영을 무시하고 원룸 안으로 들어온다.

건물주와 함께 엄마와 딸이 들어온다.

엄마는 긴 남색 코트를 입고 있고, 딸은 교복 위에 하얀 패딩을 입고 있다.

엄마 (원룸을 둘러보며) 보여주신 사진이랑 다른데요?

건물주 아, 그게요.

딸, 벽지에 있는 곰팡이를 가리킨다.

딸 (놀라며) 저거 곰팡이 아니야?

엄마 곰팡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학생 혼자 사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냄새도 이상하고. 원래 이런 냄새 나요?

건물주 학생들이 영화 촬영한다고 이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냄새도 일부러 해놓은 거고. 맞지, 다빈 학생? 응? 다빈 학생?

한다빈, 이불 위에 앉은 채 말이 없다.

김동미 (한다빈을 흔들며) 다빈아, 다빈아.

한다빈, 잠이 든 채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 그러니까 왜 영화과를 간다고 해서.
딸 엄마, 영화 촬영하려고 일부러 세팅해 놓은 거잖아.
엄마 (주위를 둘러보며) 원래 집 상태가 더러워요? 구옥¹²⁾이라 그런가.
건물주 당연히 아니죠.
 (한다빈을 가리키며) 저 학생이 사는 집인데.
 아, 같은 영화과예요. 따님도 이번에 영화과로 입학하는 거죠?
딸 네, 수시 때 합격했거든요.
엄마 (이불을 보고 놀라며) 죽은 거 아니죠? 저거 피 같은데.
김동미 가짜예요, 가짜. 가짜 피.
건물주 (한다빈에게) 다빈 학생이 학교 선배네.
한다빈 (말이 없다)
김동미 (선태준에게 눈치를 주며) 선배, 어떻게 좀 해봐.
건물주 (선태준에게) 여기 다 그럼 영화과?
선태준 영화과는 맞는데 . . .
 저기, 근데 지금 저희가 촬영해야 해서요.
딸 (최구영을 보고) 어? 저 봤는데. 졸업 영화제 때 봤거든요.
최구영 저요?
딸 여기 앞에 독립영화관에서. GV 때 질문도 했는데.
 저 기억하세요?
최구영 기억이 잘 . . .
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했는데 감독님이 . . .
 (생각하며) 아, 뭐라고 했더라?
최구영 저 이제 감독 안 합니다.
딸 (생각이 난 듯) “진정한 영화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
 까지 촬영을 마무리한다.” 맞죠?
최구영 아, 그랬나?
딸 감독님 말씀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서 합
 격한 거예요!
 그럼, 여기 촬영하는 것도 감독하시는 거예요?
최구영 아, 여기 지/금.
딸 저 그럼, 구경해도 돼요? 감독님 촬영하는 거 궁금했거든요.
엄마 뭘 구경해? 여기 말고도 두 집 더 봐야 해.
딸 안 돼요, 감독님?
최구영 저는 괜찮은데 . . .

최구영, 선태준을 바라본다.

김동미 (선태준에게, 속삭이며) 3분 뒤에 출발해야 해.

12) 구옥: 지은 지 오래된 집.

건물주 잠깐 보고 가도 되죠?
과태료 나와도 내가 넘어가 줄게, 응?
김동미 선배!
선태준 저희 지금, 바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딸 (기분이 좋은 듯) 정말요?
선태준 (최구영에게) 선배, 세팅 좀.
최구영 나도?
김동미 (급하게) 빨리, 시간 없어. 응? 빨리!

선태준, 김동미, 최구영, 빠르게 촬영 세팅을 시작한다.

엄마 (건물주에게) 일단 저희는 다른 집도 봐야 해서.
건물주 따님이 학교 다니면서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선태준 (모두에게) 모두 카메라 뒤로 와주세요. 제 뒤로요.
건물주 어머님도 촬영 현장 한 번 보시죠.
딸 (엄마에게) 잠깐만 보고자, 응?
김동미 (영화 촬영용 카메라 쪽으로 가며) 바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얼른 카메라 뒤로 와주세요.

김동미, 화장실로 들어가 음향 헤드셋을 착용한다.
한다빈과 김동미를 제외한 모두, 영화 촬영용 카메라 뒤로 간다.

선태준 형광등만 꺼줘.

최구영, 형광등 스위치 쪽으로 뛰어간다.

딸 (속삭이며) 영화 촬영장은 처음이에요.
최구영 스위치가 안 보이는데?
김동미(소리) 현관문 옆에.

최구영, 현관문 쪽으로 간다.

건물주 이 집이 좋아요.
(창문을 보며) 5층이라 시야도 탁 트여있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다빈 학생처럼 촬영장으로도 쓸 수 있고.
최구영(소리) 없는데?

김동미, 화장실에서 나와 형광등 스위치 쪽으로 뛰어간다.

딸 비디오테이프는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선태준 저것들 다 집주인 거예요.

딸 (건물주를 보며) 아저씨 거예요?
선태준 (한다빈을 가리키며) 저기 앉아 있는 친구 거야. 영화광이거든.
건물주 여기 살면 저 친구처럼 영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감독도 될 수 있고!

(형광등이 꺼지자, 블루 스크린의 파란빛과 온열기의 빨간빛이 한다빈을 비춘다.)

선태준 다빈아, 바로 해볼게.

한다빈, 말이 없다.
최구영, 영화 촬영용 카메라 뒤로 온다.
김동미, 한다빈에게 다가간 후, 몸을 흔든다.

김동미 (한다빈을 흔들며) 다빈아, 너 괜찮아? 응?

사이.

김동미 (놀라며) 다빈아!
한다빈 (잠에서 깨며) 어, 끝났어, 촬영? 나 그럼, 일 가야겠다.
김동미 (한숨을 쉬며) 아직 촬영 중이야.
한다빈 그러면 더 쉴 수 있겠다.
김동미 쉬긴 뭘 쉬어? 마지막 테이크 할 거야, 지금.
선태준 다빈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아까 했던 대로.
숨 크게 쉬었다가 점점 숨이 멎고, 그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
알겠지?
한다빈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김동미 (큰 목소리로, 선태준에게) 제가 다시 전달할게요.
(한다빈에게, 속삭이며) 다빈아, 진짜 마지막이거든?
한 번에 끝내고 바로 촬영 장비 반납하러 가자.
한다빈 선배, 나 몸이 안 좋/아.
김동미 딱 한 번. 그리고 꼭 쉬면 되/잖아.
선태준 (답답한 듯) 둘이 뭐하는데?
한다빈 일하고 촬영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 일주일 동안.
김동미 (작은 목소리로 화를 내며) 우리 중에 페이 받고 영화 촬영하는 사람
있어? 마지막 테이크만 가자고, 응? 그게 힘들어?
우리 모두 촬영 끝나면 일해야 해.
너만 일해? 너만 힘들/어?
최구영 야, 똥미! 반납 안 할 거야?
김동미 다빈아, 나 이번에 진짜 제때 반납해야 해.
부탁할게.
응?

한다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김동미 (큰 목소리로) 바로 가볼게요.
선태준 온열기 위치만 다시.

김동미, 온열기 위치를 세팅한 후 다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다.

선태준 카메라 롤, 사운드.
김동미(소리) 스피드.
선태준 레디, 액션.

한다빈은 숨을 크게 쉬다가, 서서히 느린 속도로 숨을 쉰다.
곧이어 움직임이 사라지고, 멈춘다.

(관객이 긴 시간으로 체감할 정도로 충분히 오랜 시간 진행된다.)

선태준 컷!

선태준, 촬영용 카메라를 확인한다.

딸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건물주 (설득하듯) 여기 살면 선배들이랑 매일 영화 촬영할 수 있어.
선태준 사운드 괜찮아?
김동미(소리) 완전 좋아요!
엄마 이제 가볼게요.
다른 집도 봐야 해서.
건물주 신축 건물은 이런 느낌으로 촬영 못 /해.
최구영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냐?

김동미, 화장실에서 나온다.

김동미 바라시 하계 형광등만 얼른 꺼줘!

최구영, 형광등을 키려고 스위치 쪽으로 간다.
이때, 원룸의 모든 전기가 나간다.

(무대 어두워진다.)

선태준 형광등만 끄라니까.
최구영(소리) 나 아무것도 안 껐는데?

딸, 창문 밖을 바라본다.

딸 밖에도 다 정전이에요.

한다빈을 제외한 모두, 창문을 통해 밖을 본다.

건물주 건물 공사하다가 잘못 건드렸나?
 그러면 다른 집 보기 어려울 텐데.

선태준, 휴대폰 플래시를 켜 후, 천장에 달린 음향 마이크를 비춘다.

선태준 선배, 마이크만 빨리 정리해 줘.

김동미와 최구영, 휴대폰 플래시를 켜다.

최구영, 천장에 달린 음향 마이크를 정리한다.

엄마 역시 구옥은 위험해.
선태준 미감님, 화장실 모니터 챙겨서 나오세요.
엄마 자주 정전돼요?
김동미(소리) 네, 감독님!
건물주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태준, 촬영용 카메라를 정리한다.

엄마 집 잘 보고 갑니다.
딸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선배님.
선태준/최구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건물주 (밖으로 나가며) 여기가 5층이라 환기도 잘되거든요.
엄마 (밖으로 나가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번 걸어 올라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건물주와 엄마와 딸, 현관문 밖으로 나간다.

최구영 (음향 마이크를 정리하며) 동미, 언제 출발하면 돼?

김동미, 화장실에서 나온다.

두 손엔 모니터가 들려있다.

김동미 지금 바로. 늦겠어!
최구영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 타고 렌탈샵에 먼저 가서 반납할게.

선태준 음향 장비만 먼저 가져가세요, 가벼우니까.
최구영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최구영, 음향 장비를 챙긴 후 밖으로 나간다.

김동미 (원룸을 둘러보며) 여기 정리는 어떡하지?
선태준 (카메라 정리를 하며) 다빈아, 너는 여기 정리하고 있어.
 우린 반납하고 다시 올게.

한다빈, 대답하지 않는다.

김동미 (화를 내며) 한다빈, 너 진짜 끝까지 그럴/래?
선태준 (말리며) 일단, 가자. 다 챙겼지?
김동미 (주위를 둘러보며) 복도에 있는 것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선태준 일단 우리도 가자.
김동미 (밖으로 나가며) 넘어지면 안 돼. 카메라 렌즈 또 깨진다고.
 그러면 또 6개월 동안 공장에서 일해야 해.

선태준과 김동미, 밖으로 나간다.
한다빈, 가만히 앉아 있다.

(각기 다른 질감의 건물 폭발 소리가 들린다.)

이때, 원룸에 전기가 들어온다.

(무대 밝아진다.)

블루 스크린이 작동되고, 온열기가 회전한다.
한다빈이 앉아 있는 이불의 부패액과 혈액도 점점 진해진다.
그 모습이 마치, 한다빈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 같기도 하다.
한다빈이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무대는 서서히 암전된다.

- 막 -